



10월항쟁 80주년행사위원회

이 소책자는 10월항쟁 80주년을 맞아 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10월항쟁시민연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항쟁의 도시' 대구·경북의 참 모습을 되찾는 데 이 소책자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원안내

IM뱅크(구 대구) 505-10-262643-0

10월항쟁시민연대(임성중)



후원계좌 바로가기

1946

2026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10월항쟁 이야기



1946



2026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10월항쟁 이야기



목차

100년 전 오늘은 어떤 날이었을까요?_4

너도 나도 꽃피운 새 나라 이야기_7

‘조선의 모스크바’_8

꿈꿔본 미래_10

무너진 기대_12

쌀을 다오!_17

100만여 명의 실업자_22

하늘 향해 치켜 올려진 검지손가락_24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_26

이 땅 최초의 계엄령_29

폭발한 분노가 향한 곳_31

빨갱이는 죽여도 돼!?_33

10월항쟁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다_36

달성군 가창골_40

경산 코발트 광산_42

영천 아작골_46

‘10월항쟁’이다_47

우리의 ‘10월’_50

10월항쟁 일자별 전개과정_52

10월항쟁 전개도_59

10월항쟁 주요장소_60

참고문헌_70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캐나다 선교사 맥레(Macrae DM)의 사진

100년 전 오늘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100년 전이라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는 ‘반도인’이었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인가요? 일본제국주의는 본토인 일본 사람을 ‘내지인’, 식민지 조선 땅에 사는 사람을 ‘반도인’이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일본’, ‘조선’이란 말을 통해 구분되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렇다고 ‘반도인’에게 ‘조선인’이란 정체성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야구만 해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라팍(라이온즈 파크)에 가서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던 사람이 다른 팀을 응원하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수천 년 동안 다른 땅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음식을 먹으며 살아온 사람들을 같은 정체성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범해 식민지로 삼으려는 이유가 그 나라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일 리는 없지요. 식민지는 본국을 위한 정치·경제적 수탈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36년을 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한여름 하늘치고는 이상하리만큼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서울의 거리란 거리, 길이란 길은 어제와 완전히 판판이었다. 지금까지,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태극기, 적기(赤旗), 기, 기, …… 온통 기의 물결이었다. 그 기를 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단 하나였다.

“조선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만세!”

- 김달수, 『태백산맥』

재일조선인 작가 김달수는 ‘8·15에서 10월 대구봉기로 이어지는 격변의 민족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란 부제가 붙은 장편소설 『태백산맥』에서 해방 이튿날인 1945년 8월 16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해방된 이 땅에서 목이 터져라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이 가장 바란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쌀’과 자유였을 것 같습니다. 그 길고 끔찍했던 굶주림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1945년 8월 16일, 마포형무소 앞



너도 나도 꽃피운 새 나라 이야기

“오르락 내리락 20리 길을 새나라 이야기에 꽃이 필니다”

그리하여 당시 민중들은 모이기만 하면 ‘새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되찾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겠지요. 얼마나 신나고 기대했을까요?

해방 이후 전국에서는 우리의 자주적인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건국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일 벌써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여운형은 세계정세를 살피고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건국동맹을 꾸려왔습니다. 이렇듯 초기의 건국 운동은 항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고, 항일운동의 경험들은 민중들의 신뢰와 대표성을 얻기에도 충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받던 지도자였기에 조선총독부는 천황이 패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자신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할 상대로 여운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모스크바’

대구는 어땠을까요? 조선 말까지만 해도 대구는 경상감영(현재 도청 같은 역할)이 있던 곳이었지만 경주, 상주, 진주보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904년 러일 전쟁 후 깔린 경부선 철도가 대구를 지나가게 되면서 커지기 시작하여 일제 말 경상북도 대구부는 서울, 평양,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1907년 국채보상운동¹⁾을 처음 시작한 곳이 대구 이듯 일제 말에도 대구는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이 왕성해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리던 곳입니다. 지금 ‘근대 골목’으로 불리는 반월당 약전 골목의 근대를 상상해 봐요. 이상화, 이육사, 현진건 같은 문인과 그 형제 등 많은 이들이 득시글거리며 빼앗긴 나라, 빼앗긴 봄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모의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만주로, 상해로 떠났다 돌아오고 울분을 토하며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겠지요. 그 뿌리는 충효를 근간으로 하는 영남 유림의 유서 깊은 전통이 이어져 오는 지역이기 때문일 겁니다.

1)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 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운동

대구에서도 해방 이틀 후인 1945년 8월 17일 우익 인사들의 모임인 치안 유지회가 좌우익 모두에게 명망이 있던 서상일을 대표로 결성되고, 좌익 측에서는 같은 날 김관제를 위원장으로 건국준비위원회 경북지부를 결성하였습니다. 치안유지회가 명망가 및 기존 행정조직에 의하여 조직된 데 비하여 건준은 대중적 지지를 과시하듯 결성식을 국민대회와 겸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서상일과 함께 지역의 유력한 독립운동가였던 심산 김창숙의 중재에 의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8월 22일 좌우합작단체로서 ‘건국준비 경북치안유지회’(건준치유)가 발족했습니다. 서울에서 좌우익이 벌인 갈등과 대립이 심했던 것에 비하여 대구에서는 미군이 진주해 올 때까지 두 달여 짧은 기간 좌우가 함께했습니다.

이후 1945년 12월까지 대구에서는 80여 개의 정당과 단체가 결성되었고, 좌우 세력을 막론하고 자주적인 국가 수립을 위해 활동해 나갔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좌우의 갈등이 강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부분 항일운동의 과정을 함께 겪었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좌우 이념의 갈등이 아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꿈꿔본 미래

미군이 들어오기 앞서 여운형이 중심이었던 남쪽의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서둘러 전환했습니다. 해방된 이 땅에 외세의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우리나라’를 갖고자 하는 염원이 모여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을 의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무’라는 말과 함께 ‘인민’이라는 말을 잃어버렸지만, 해방된 땅에서 내 나라를 우리 손으로 건설해 보겠다는 의지로 당시 사람들은 ‘인민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10월 말까지 남쪽의 7도(道), 12시(市), 131군(郡)에 하나도 빠짐없이요.

1934년부터 1949년까지 15년간 영천 지역의 성당에서 선교 활동과 빈민 구제 활동을 했던 루이 델랑드라는 프랑스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1945년 9월 23일 자 일기에 “예전에 형사였던 두 사람이 와서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다. 나는 이번 기회에 그들의 교양의 부족함과 사람들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냉혹한 지적을 좀 했다. (중략) 사람들의 이야기 주제는 오로지 공산주의, 농민조합,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이방인의 눈에도 당시 민중들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공산주

日 報 東 亞 1946年 8月 13日 星期一

公式主義清算

朝鮮의 獨性發露의 基本條件

論 朝鮮의 獨性發露의 基本條件

▲ 獨性發露의 基本條件은 何處에 있는가? ▲ 獨性發露의 基本條件은 何處에 있는가? ▲ 獨性發露의 基本條件은 何處에 있는가?

朝鮮의 獨性發露은 何處에 있는가? 獨性發露의 基本條件은 何處에 있는가? 獨性發露의 基本條件은 何處에 있는가?

獨性發露의 基本條件은 何處에 있는가? 獨性發露의 基本條件은 何處에 있는가? 獨性發露의 基本條件은 何處에 있는가?

日驅逐美軍의 賭物

自主를 正迎超羣民意에 背反

日驅逐美軍의 賭物

▲ 日驅逐美軍의 賭物은 何處에 있는가? ▲ 日驅逐美軍의 賭物은 何處에 있는가? ▲ 日驅逐美軍의 賭物은 何處에 있는가?

日驅逐美軍의 賭物은 何處에 있는가? 日驅逐美軍의 賭物은 何處에 있는가? 日驅逐美軍의 賭物은 何處에 있는가?

日驅逐美軍의 賭物은 何處에 있는가? 日驅逐美軍의 賭物은 何處에 있는가? 日驅逐美軍의 賭物은 何處에 있는가?

兩極端의 性格

자신을 戒除開放의 特徵

兩極端의 性格

政治自願要求

附錄第三 朝鮮의 反對

政治自願要求

▲ 朝鮮의 反對 (一)	▲ 朝鮮의 反對 (二)	▲ 朝鮮의 反對 (三)	▲ 朝鮮의 反對 (四)	▲ 朝鮮의 反對 (五)	▲ 朝鮮의 反對 (六)	▲ 朝鮮의 反對 (七)	▲ 朝鮮의 反對 (八)	▲ 朝鮮의 反對 (九)	▲ 朝鮮의 反對 (十)
▲ 朝鮮의 反對 (十一)	▲ 朝鮮의 反對 (十二)	▲ 朝鮮의 反對 (十三)	▲ 朝鮮의 反對 (十四)	▲ 朝鮮의 反對 (十五)	▲ 朝鮮의 反對 (十六)	▲ 朝鮮의 反對 (十七)	▲ 朝鮮의 反對 (十八)	▲ 朝鮮의 反對 (十九)	▲ 朝鮮의 反對 (二十)
▲ 朝鮮의 反對 (二十一)	▲ 朝鮮의 反對 (二十二)	▲ 朝鮮의 反對 (二十三)	▲ 朝鮮의 反對 (二十四)	▲ 朝鮮의 反對 (二十五)	▲ 朝鮮의 反對 (二十六)	▲ 朝鮮의 反對 (二十七)	▲ 朝鮮의 反對 (二十八)	▲ 朝鮮의 反對 (二十九)	▲ 朝鮮의 反對 (三十)
▲ 朝鮮의 反對 (三十一)	▲ 朝鮮의 反對 (三十二)	▲ 朝鮮의 反對 (三十三)	▲ 朝鮮의 反對 (三十四)	▲ 朝鮮의 反對 (三十五)	▲ 朝鮮의 反對 (三十六)	▲ 朝鮮의 反對 (三十七)	▲ 朝鮮의 反對 (三十八)	▲ 朝鮮의 反對 (三十九)	▲ 朝鮮의 反對 (四十)
▲ 朝鮮의 反對 (四十一)	▲ 朝鮮의 反對 (四十二)	▲ 朝鮮의 反對 (四十三)	▲ 朝鮮의 反對 (四十四)	▲ 朝鮮의 反對 (四十五)	▲ 朝鮮의 反對 (四十六)	▲ 朝鮮의 反對 (四十七)	▲ 朝鮮의 反對 (四十八)	▲ 朝鮮의 反對 (四十九)	▲ 朝鮮의 反對 (五十)

崔承喜舞廳集
滿員謝禮
11日~16日
優美館

內部新莊榮
燒肉 燒魚 燒雞
燒鴨 燒鵝 燒鰻
燒鮑 燒翅 燒參
燒燕 燒鮑 燒翅 燒參
燒燕 燒鮑 燒翅 燒參

朝鮮鐵工株式會社
鐵工 鐵工 鐵工
鐵工 鐵工 鐵工
鐵工 鐵工 鐵工

1946年 8월 13일 동아일보에 실린 군정청 여론조사결과

꿈꿔본 미래 11

의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46년 8월 13일 동아일보에 실린 군정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하께서 찬성하시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모릅니다 8%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고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탄압을 겪어왔던 그들의 삶을 생각해본다면 당연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겼던 식량들, 굶주림 등은 토지개혁과 적산²⁾처분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무너진 기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우리는 긴 식민에서 해방되었지만 승전국 미국과 소련도 그것을 어떤 기회로 삼습니다. 두 나라는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해서라며 한반도를 편의상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나누고 각각 한쪽씩 점령합니다. 해방되자마자 열흘도 되지 않아 평양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으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9월 8일에는 미군이 남쪽으로 들어

2) 자기 나라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의 재산.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광복 후에 이르는 말.



조선총독부에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게양되는 모습

왔습니다.

미군은 남한에 들어온 바로 다음 날 포고령 1호를 통해 군정을 선포합니다. 군정(軍政)이란 전쟁이나 사변 때에 점령지에서 군대가 행하는 임시 행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점령에 관한 조건 6가지 중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할 것.

제3조. 주민은 본관과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시 복종할 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한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한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민중들을 대상으로 식량 공출, 징용, 정신대 동원 등을 진행해왔던 친일세력들은 해방이 되고 일본이 물러가자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찌될지



1945년 10월 1일 미군 환영대회 시가행진에서 치안유지대원들이 트럭을 타고 대구역에서 동인로타리로 향하고 있다. (출처: 매일신문)

모르는 미래에 불안해하며 돌아가는 상황을 누구보다 예의주시했을 텐데 신문에 실린 미군정의 포고문, 그중에서도 제2조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를 보며 한가닥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미군정 입장에서 일제의 조직과 인력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기 위해 친일세력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군정을 도와 무엇이든 해줄 세력^{으로요}. 미군정 경찰 고문이었던 매글린 대령은 “일본인을 위해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미군정은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라고 하며 미군정 이외 ‘조선인민공화국’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관하여>라는 방침을 통해 ‘현재의 경찰기구는 그 기능을 계속한다’라고 발표하여 친일 경찰들의 살길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경주경찰서장, 대구경찰서장, 경북경찰청장 등으로 임명하거나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미군정에 고용된 고위 경찰 중 82%가 조선총독부 출신이었던 것을 보면, 나라 곳곳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에서 친일세력들이 처벌되기는커녕 해방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거나 일본인이 빠져나간 자리로 승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랄한 수법의 고문을 자행하고 금품을 빼앗아갔던 친일 경찰들이 일본이 물러간 이후에도 똑같이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중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라를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이들이 해방

된 땅에서도 고개를 뺏뺏하게 들고 다니는 모습에 민중들은 울분이 차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정의 이러한 선택은 비판받기에 충분했습니다. 1945년 9월 11일 뉴욕 타임즈조차 ‘한국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모든 한국인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들(친일 경찰)로 어떻게 제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식민쓰레기(colonial riffraff)들에게는 무르고 우리가 해방시키려는 사람들에게는 억압적이어야 하는가”

- 1945년 9월 11일 뉴욕타임스

한반도 남쪽까지 소련의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자본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 미군정은 진보 세력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자주적인 국가건설과 그간 쌓인 민중들의 요구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활동했던 진보 세력들이 걸림돌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반대로 일본에 빌붙어 땡땡거리며 살다가 해방된 후 자신의 과거 행적을 걱정하던 이들과 손을 잡습니다.

쌀을 다오!

해방을 축하하기라도 하듯 1945년은 대풍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탈당하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으리라는 민중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그 해 1910년 이래 최악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식량을 식민지들에서 수탈해 왔던 일본은 흉년까지 겹치자 사정이 더욱 열악해져 밀수를 합니다. 미군정의 식량 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 폭등과 모리배들의 사재기 그리고 사재기한 쌀의 일본으로의 밀수출로 인해 민중은 식량난에 처합니다.

“나는 사흘 굶어서 일할 기운도 없소. 집에 식구들이 늘어져 누웠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소”

1945년 9월 미군정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 ‘미국자유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곡식을 자유롭게 사고팔지 못했는데, 미국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을 맞아 대구 공회당(현 대구콘서트하우스) 앞에 구름처럼 모여든 인파
출처 : 한국영상자료원 '1 해방뉴-쓰 특보(부제 : 조선민중을 위하여) 1946'

자유화정책으로 곡식 시장이 개방됩니다.

당시 남한의 인구는 귀환 동포들로 인해 급증했는데 특히 일본과 가깝고 기차역이 있는 대구·경북에는 30만 명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1944년 대구의 인구가 20만 명이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짐작되지요. 더구나 갑자기 열린 시장으로 인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비싸게 팔아먹을 요량으로 쌀을 사들이는 바람에 쌀 가격은 수십 배 폭등하게 됩니다.

쌀값의 폭등과 식량난 등에 의해 미군정은 미국자유화 정책 발표 5개월 만에 '미국수집령'을 발표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추수한 곡물을 강제로 거둬가고 직접 배급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일제 때의 가혹한 수탈을 기억하는 농민들은 해방된 땅에서 같은 방식의 수집에 곡식을 내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가을에 추수한 곡식에 대해 강제수집을 진행했는데 목표치의 7.3%밖에 거둬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군정은 일제 치하에서도 실시하지 않았던 여름 곡식(보리)에 대한 강제수집을 실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군정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친일 경찰이나 일본을 따르던 관리들을 동원했고 농민들을 죽이면서까지 곡식을 빼앗아갔어요.

경북은 남조선 각 도 중 최고 수집량을 기록합니다. 생산고가 가장 많은 전남의 수집량이 4만 섬인데 생산고가 그 반도 못 되는 경북이 5배가 넘는 21만 섬을 수집했으니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가혹하게 민중들을 탄압했는지 예상할 수 있죠. 당시 영천군에서는 믿기 어려운 가혹 행위도 있었습니다. 공출을 하지 않는다고 농민들을 불러내어 두 줄로 세우고 서로 뺨을 때리게 했으며, 공출이 부진한 농민들을 보리 운반 트럭에 태워 유치장으로 데려간 뒤 한 사람당 교통비 10원과 유치장 ‘숙박료’ 90원까지 받아낸 것입니다. 청송군의 경우에는 200여 명이 굶어 죽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청송군민의 기근 상태는 얘기 이상의 참담 그것이다. 진보·청송·부동 등 3개 면내 세민청의 지붕 추녀와 마당 한편에는 칩뿌리, 소나무 껍질이 널려 있지 않은 집이 별로 없고 집안에는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활동 능력을 잃고 늘어져 누운 사람들이 흥성하게 있으며 기동한다는 사람들도 얼굴이 누리딩딩한 위에 부증(浮症)이 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흠어져 누워 있고 혹은 눈을 멀거나 뜨고 있으나 기진맥진하여 말할 기력조차 없는 듯 “벌써 며칠째 부엌에 불을 못 살려서……” 하고 목이 메인다.

『대구시보』 1946년 6월 12일

四十戶部落의 (全滅) 狀態

論工面に虎疫慘禍

達城郡

(玄風支局三日 電話)防疫運動
은邑村查不問하
이러한다

憂鬱한消息

虎疫死亡者

二千名突破

고,活潑히展開되어있
는이때에洞窟의주注意
인지達城郡論工面下洞
一子에는全戶數外四十
戶불過한에患者數는二
日現在三十명死亡者는

憂鬱한虎列刺의發生消
息이根絶되지않고오날

‘40호 부락이 전멸 상태’라는 제목으로 콜레라의 참화를 보도한 영남일보 1946년 8월 4일자 기사이다. 경북 달성군 논공면 하동에 30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여 온 마을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고 전하고 있다. 하단에는 ‘호역 사망자 2천명 돌파’라는 기사도 보인다.

더구나 콜레라까지 발생하게 돼요. 콜레라는 전국적으로 번졌지만 굶주림이 심했던 대구·경북 지역의 희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6년 5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콜레라로 경북에서만 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7월 초의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의 콜레라 환자 수 중 경북의 환자 수가 절반에 이르고, 환자의 반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미군정은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 주변의 교통을 차단해 버립니다. 주변 농촌에서 소량의 식량을 반입해 근근이 생계를 연명하던 대다수 사람

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고, 대구의 시민들은 그렇게 고립되고 맙니다.

1946년 초부터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돈이 있어도 쌀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민중들은 이미 1월부터 빈 쌀자루를 들고 경북도청이나 대구부청에 몰려가 식량 배급을 요구하는 기아 데모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날마다 기아 행진을 벌이자 하루는 시장이 텅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 그러더니 부녀자들에게 대뜸 ‘살림 사는 여편네들이 양식 단도 리도 못 해 소란이냐!’라고 힐난하는 거야. 기가 막힌 군중들은 그대로 시장 책상을 뒤엎고 소동을 부렸지. 시장은 겁이 났던지 경찰을 불렀지만 사정을 들은 경찰들은 자기들도 굶주리는 처지라서 그런지 잠잠이 있다 그냥 가더구만”

- 이원혁 회고

100만여 명의 실업자

식량문제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심각했어요. 해방 후 일본 자본들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공장이 휴업하고 문을 닫았어요. 이로 인해 실업자는 40만여 명이 넘게 되고, 해방이 되자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60만여 명까지 더해져 실업자가 100만여 명이 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5,160만 명인데 실업자 수가 121만 명(2026년 1월 기준) 정도 됩니다. 당시 남조선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는데도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었다고 하니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들이 위축된 데에는 북측에 의존해 온 석탄과 전기 등의 갑작스런 단절에 원자재와 기계, 자본 부족 등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공업화는 일본의 자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면이 있어 일제의 자본과 기술자가 철수한 것은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공업의 주요한 부분이 군수 산업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 군수품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실업자뿐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불안하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임금 삭감, 식량부족,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46년 노동자들의 임금은 해방 전이었던 1939년에 비해 반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운수 노동자의 사분의 일 해고, 월급제의 일급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합리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더더욱 불안해지고 열악해지면서, 생활을 이루어나가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해방이후 노동자들은 자주관리운동을 전개했고,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출범한다

하늘 향해 치켜 올려진 검지손가락

분노한 노동자들은 1946년 9월 23일 부산의 철도 노동자의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진 철도 파업은 4만여 철도노동자가 참가했으며 금속, 화학 등 산업의 전 분야에서 15만 노동자가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시민에게 쌀을 달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과 집과 쌀을 달라’, ‘임금을 인상하라’, ‘투옥 중인 민주주의 운동자들을 즉시 석방하라’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서울의 중학교와 전문학교 학생들도 가세하여 학원의 자유,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파업에는 현재의 육군, 해군에 해당하는 국방경비대, 해상경비대도 일부 동참했으며 심지어 미군 내의 미국 공산당 당원 수십 명이 ‘조선에서 미군을 철퇴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군정 경찰은 총파업의 거점인 서울철도 파업단에 탱크와 기관총으로 무

장한 경관 2,000여 명을 투입하고 반공 우파 청년단 1,000여 명도 가세해 8시간에 걸친 시가전으로 3명의 간부 사망, 부상자 수백 명, 총 1,70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대구에서도 9월 24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우체국 노동자들, 직물과 섬유산업의 노동자들, 신문을 발행하고 인쇄하는 노동자들, 제조업 노동자들 등도 함께 파업에 동참합니다. 9월 30일에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4,000여 명에 달했다고 해요.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대구역 인근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모여서 매일 집회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일반 시민들과 함께였고 10월 1일, 2만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대구역 인근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경찰은 모여 있던 사람들을 향해 발포를 하고 맙니다. 경찰의 총



1946.10.02. 대구시위 발포 현장 사진 (출처 :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소)

거리 한쪽에 장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구조물 뒤에 엄폐하고 있고, 반대편으로 피신한 시위군중 쪽에는 여러 명이 쓰러져있다.

격으로 인해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돼요. 그 중 한 명은 ‘김용태’라는 철도노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날 대구의전 학생들이 김용태의 시신을 들것에 메고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당시 첫 발포를 한 경찰이 죽기 두어 달 전 병석에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휘관의 손만 보고 있었다고. 지휘관의 검지가 하늘을 향해 치켜올려졌을 때 방아쇠를 당겼다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손가락으로 표시한 그 경찰 지휘관에게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그날 아침에 사범대학에서 학생들과 모여 있었어요. 경찰 발포로 노동자가 죽었다고,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 대구경찰서에 가서 미군 책임자에게 항의해야 되지 않겠나 어쩌냐 카고 있는데. 의대 쪽에서 당가를 들고 왔는 기라. 그걸 보자 사살된 노동자가 바로 저기 막 실려 온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긴박한 느낌을) 느꼈어요. 학생들 몇백 명이 앞뒤 가릴 것 없이 와악, 운동장으로 튀어 나갔지. 그

래서 당가 가는 대로 따라서 대구경찰서까지 갔는 기라. 세 대학 학생들이 합쳐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중학교 여학생, 남학생들도 막 모여들어 짹 찼어요.”

- 이종하, 2003년 7월 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찰의 총격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삼시간에 퍼졌습니다. 10월 2일 아침, 현재 경북대 의과대학인 대구의전 학생들은 전날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시신을 들것에 메고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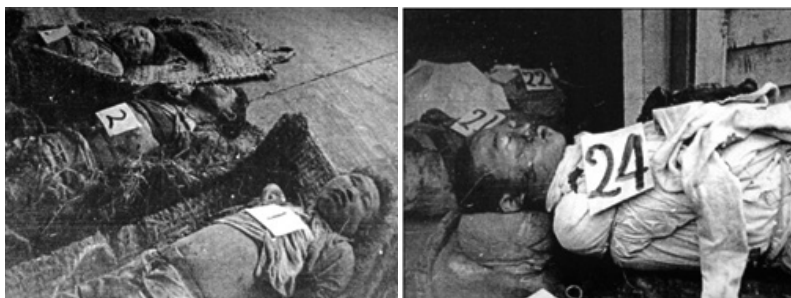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 ‘경찰은 사과하라!’를 외치면서 대구경찰서로 향의 하러 갑니다. 대구의전을 출발한 학생들이 대구사대 운동장에 들어서자 사대생은 물론 그 옆 대구농대 학생들도 시위대에 가담하여 3개 대학 연합시위대로 발전합니다.

대구 각급 중등학교에서도 주로 그 학교 출신 선배로 구성된 ‘대학생 선동대원’들에 의해 시위가 시작되어 경북중을 시작으로 대구상업중, 경북고녀, 대구여상(현 제일여상), 대륜중, 대구농림학교, 계성중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경찰서 앞에 총집결할 때는 대구공업, 대구중학, 대구여중, 능인중학의 학생들도 집결했습니다. 학생들의 행진을 보고 시민들도 구름같이 몰려들어 시위대의 수는 약 1만 5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미군정과 경찰은 군중들을 해산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미군정은 이성옥 대구경찰서장에게 무력을 쓰더라도 군중들을 해산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이성옥 대구경찰서장은 총기를 반납하고 경찰 병력을 철수시킵니다. 시민들은 대구경찰서로 들어가 유치장 문을 열고 부당하게 갇혀 있던 100여 명을 석방해내기도 합니다.

같은 시각 대구부청 앞에서도 몽둥이로 무장한 군중과 300명가량의 여성이 모여들어 쌀 배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11시쯤 경찰이 해산시켰습니다.

또 대구역 인근에서는 전날 동료 노동자의 죽음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경찰들이 출동했고, 단상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던 여성노동자와 이어서 올라오던 다른 노동자를 또다시 사살하고 맙니다.



1946.10.02. 대구시위 피살자 사진 (출처 : 미국 국립문서기록 보관소)

이 땅 최초의 계엄령

미군정은 10월 2일 오후 3시부터 장갑차 4대와 기관총 부대를 투입시켜 군중에게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때 이재복, 최문식과 학생 대표는 미군과의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1. 파업단의 합법성을 인정할 것
2. 검속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3. 무기 탄압을 일체 중지할 것

경찰서가 점령됨에 따라 김관제 선생과 전매국 파업을 주도한 강주영 등 120명이 석방되고, 오후 5시에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선포된 첫 계엄령이었습니다.

미군정은 포고령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대구 전역에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폭발한 분노가 향한 곳

“징용에 끌려갔다 돌아온 고향 친구들과 날마다 술로 세상을 한탄하며 보내다 10월 인민항쟁을 만났지.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얘기가 모여져서 이 기회에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도 지금까지 버젓이 행세하는 일제 때의 관리들을 찾아가 따지기로 한 거야. 시내서 양조장 하던 이○○라는 사람 집을 찾아갔는데 전부 도망가고 없더구만. 그래서 창고를 열어보니 그 귀하던 설탕부대가 가득 차 있고 고무신이며 쌀가마가 수북한 거야. 분통이 터져 그 집에 불을 질렀지. 그 일로 나중에 치안대에 끌려가 호되게 고생하고 나왔지만.”

- 이원혁 회고

한편, 분노가 폭발한 시민들은 대구 시내 곳곳의 파출소를 점거하고 경찰·관리·부자들의 집을 공격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있던 민중들과 다르게 쌀가마와 설탕을 쌓아놓고 있던 친일 경찰들, 친일세력들의 집을 공격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빼앗은 물건과 식량을 달성공원에 모아놓고 가난한 이들과 못 먹고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굶주렸던 이들에게 해방구가 열린 것이죠. 이후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예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달성경찰서 간부로 있던 사람의 집에 시민들이 몰려갔더니 부엌에 일주일쯤은 밥을 안 지은 듯한 녹슨 솥이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오히려 다른 친일 경찰의 집에서 가져온 쌀을 이 집에 가져다 놓고 돌아섰다고 해요. 폭발한 분노는 그동안 가혹하게 거두고 빼앗은 이들의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쌀인 게 많았던 민중의 보복행위는 심각하기도 했어요. 식량을 빼앗아오고, 불을 지른 것뿐 아니라 경찰과 친일세력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들도 친일세력에 대한 분노가 차있었습니다. 민중들에게 총을 겨누는 경찰들, 항쟁의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들에 대해 치료를 거부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동안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민중들을 괴롭혔던 친일세력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민중들은 해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치하 때와 마찬가지로 쌀을 빼앗기고, 일자리를 빼앗기고, 탄압받는 것이 식민지 때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렇게 또 나라를 빼앗길 수 없었던 민중들은 ‘앉아서 굶어 죽으나 파지다가 잡혀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이라는 심정으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10월항쟁은 대구에 계엄령이 내려진 10월 2일 밤부터 인근 군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까지 확산되어 갔고 12월까지 이어져 남한 전역의 73개 시군에서 항쟁이 벌어집니다.

9월 총파업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거점인 서울에서도 미군정의 발포로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대구에서의 파업과 시위와 발포는 상황을 종료시키지 못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대구·경북 지역의 여러 상황이 열악하기도 했지만,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의 뿌리 깊은 저항 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과 각종 진보적 정당운동 그리고 민주주의민족전선 등 이들 간의 연대·연합운동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지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10월 2일 계엄령 선포 후 며칠간 수세에 있던 경찰과 서북청년회나 독촉

국민회 등 우익단체들은 테러와 보복을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길거리와 민가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청년·장년의 남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 갔어요. 체포한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구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진압에 나섰던 서북청년단은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검문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사살했고, 주민의 재산을 탈취하고 방화를 저지르거나 성폭행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결과 대구·경북에서만 7,500명이 검거됐고, 경찰유치장이 부족하여 대구형무소의 운동장과 감방, 사무실까지 빌려 수용하는가 하면 이곳저곳에 임시수용소를 설치하기도 했어요. 10월항쟁 당시 소년으로서 현장을 보았던 강창덕은 당시 대구형무소에서 불렀다는 민중의 노래를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 석 발가웃 포승줄에 묶여가는 우리 낭군
군정 재판받더라도 강제공출 반대하시오...”

미군정은 1946년 10월 29일부터 대구지방법원에 특별군정 재판을 설치하고, 10월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 6,580명은 1947

년 1월에 석방되었으나 그 기간 동안 경찰의 무자비한 보복 테러와 고문에 시달려야 했으며 나머지는 징역형을 받거나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명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용의자들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으며, 경찰은 책상 곁에 앉은 채 한 사람씩 심문하였다. ... 사복형사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죄수’를 직경 2인치 길이 25인치 막대기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 _ 로스(Max M, Roth) 중위는 100명의 ‘죄수’들이 수용된 감방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목격했다고 증언

10월항쟁에 대한 진압은 항쟁 초기보다 1947년 하반기로 갈수록 희생자가 더 많아집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의 우익단체들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0월항쟁으로 검거되었다가 훈방된 사람들, 남로당 가입자와 그 가족들을 살해했고, 10월항쟁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살해했습니다. 관련 없는 자도 빼앗거나 죽이고 싶으면 ‘빨갱이’로 덮어씌우기도 해 당시 경찰서는 ‘빨갱이 제조공장’이라고 불렸어요.

“대구10월사건이 났을 때 정부에서 충남부대를 보냈다. 충남부대

원들은, 사상자도 아니고 공비도 아닌데 그냥 총이 겁이 나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쏘아 죽이기도 했다.”

“경찰과 특경대원은 사건 발생 당일 육통리 뒷산 인근에서 나무를 하러 올라가던 손진성 일행을 향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총을 쏘았다”

“군인들이 와서 ‘빨갱이 밥해줬제’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물에 처넣고 했다 카이. 마을 바로 앞의 못에. 우리가 죽지는 않고 겨우 살기는 살았지만, 고통을 많이 받았지요. 서북청년단이 동네에 와가지고 다니면서 빨갱이를 만들었어요. 와서 무조건 두드려 패니 매에 못 이겨 산에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영천 고경면 최○○구술)

10월항쟁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다

1948년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은 이념 대결 속에서 체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토벌 대상’으로 지목된 건 10월항쟁 관련자들이었

습니다. 마을 대표나 지역 유지, 고학력 지식인들은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해 감시했습니다.

여순항쟁 이후에는 남한 내부에 다수의 좌익세력이 잠복해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좌익색출 작업에 나섭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색출작업 결과 수감자는 수만을 넘어섰고, 형무소는 늘어나는 수감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좌익관련자들을 무조건 수감할 것이 아니라 전향시킬 것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는데, 그것이 바로 1949년 4월부터 시작한 국민보도연맹입니다. 이때에도 10월항쟁 참가자들을 가입시킵니다. 국민보도연맹 마산지부는 가맹주관을 설정하고 가맹 대상자 중 하나로 ‘10월 폭동에 의식·무의식적으로 가담한 자’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경은 지역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수감자들이 인민군을 도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폐광산과 골짜기 등으로 끌고 가 학살을 자행합니다. 이런 역사로부터 우리에게 ‘골로 간다’는 아픈 관용 표현이 하나 새로 생겼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10월항쟁을 이유로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과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던 이들이 학살당하게 되죠.

“10월사건 나고 경찰과 우익이 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불을 지르는 거라. 그러자 마을에서 이데올로기 선전하던 주동자들, 지식인들

은 다 산으로 가고 가난한 무식자들만 남았어. 그때 이 마을은 암흑 마을이었어. 밤에 불을 켜면 경찰이 빨갱이 왔다고 달려오니 불빛마저 가리고 살았어. 그런데 산에 간 사람들이 친인척에게, ‘야야, 내가 식량이 떨어졌는데 좀 가져오너라’라고 하면은 정과 천륜관계를 끊지 못하고 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명령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 마을에 또 풍파가 일지. 당국에서 이것을 알면 군인 경찰이 와서 남녀노소 모두 불러 학교 운동장에 엮어놓고는 ‘여기는 완전히 빨갱이 마을이니 한두 명을 가려낼 거 아니다’라고 하며 때리니 모두 허연 삼베옷 입은 채 일렬로 엮어져서 맞고, 고문이 끝나면 각자 매맞은 식구들을 돌려메고 집에 눕혀놓고 어혈을 푸는데, 그 당시에는 장독(杖毒)을 풀려면 똥물을 먹어야 한다 해서 집집마다 똥물 거르고 받는 게 일이라.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자수하면 고문 안 하겠다고 선전하는 거라. ‘산에 음식 날라주고 빨갱이에게 동조했던 사람은 보도연맹 가입해라. 그러면 괴롭히지 않겠다.’고 했어. 결국 산사람에게 간장 한 접시 준 사람까지 자수하다 보니 마을 사람 대부분이 보도연맹에 가입했어.”

사살된 희생자 중에는 자신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

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이 확장될 때 상부로부터 경찰서마다 가입 인원이 일정하게 할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좌익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가입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경북 영천군에서도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천군에서는 구장이 경찰에서 지시한 가맹 할당량 때문에 강제로 가입시킨 경우입니다. 다음은 진화위 신청인 양근백의 진술입니다.

“해방 전후에 영천읍 도립동에는 50가구 정도가 살았고 좌익단체도 우익단체도 없었어. 우리 부친은 가난해서 글도 모르고 학교도 안 했지. 소작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온 식구가 새끼를 꼬아서 장날이면 장에 가서 팔곤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동장 최○○ 씨가 각 마을에 보도연맹 가입자를 몇 명씩 추천하라고 경찰서에 서 지시가 왔다고 했어. 그리고 최○○ 씨는 우리 마을에서는 자신과 친한 아버지와 고모부를 추천했지. 아버지는 여기 가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을까 하였다가 나중에 보도연맹이 어떤지 이상한 단체인 걸 알고 가입한 걸 후회하기도 했어. 결국 전쟁이 나자 최○○ 씨는 살고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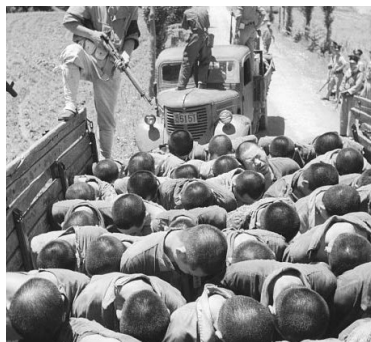
“한집에 살던 사람이 양복점을 했었는데 경찰들이 공짜로 옷을 고

쳐달라고 할 때 잘 안 고쳐주니까 경찰들이 저 사람 빨갱이다 하면서 보도연맹에 명단을 올렸다. (중략) 보도연맹원은 전부다 직접적인 빨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하고 사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가입시키기도… 경찰이 명단을 올리면 가입이 됩니다.”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되었는데, 전쟁 발발 직후 소집, 연행 등의 방식으로 예비검속이 된 다음 한꺼번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적법한 근거와 절차도 없이 정부에 의해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것이죠.

달성군 가창골

달성군 가창골은 10월항쟁의 대표적인 학살장소로 대구형무소에 상주하던 대구경북지구 CIC(방첩대)와 3사단 22연대 소속 헌병대, 경찰 등이 적법 절차 없이 두 차례에 걸쳐 수천 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당시 대구형무소에 수감되



1950년 7월경, 트럭 뒤편에 가득 실린 민간인 보도연맹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처형지로 이동하는 장면

출처 : Picture Post-5086-Korean War Series- pub. 1950 (Photo by Haywood Magee)

어 있던 제주 4·3과 여수·순천 항쟁 관련자들도 함께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창골은 1954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59년에 가창댐이 준공되었습니다. 공사 당시 굴착작업을 하던 기사가 땅을 파면 나오는 수많은 유골에 놀라 도망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댐 공사 중 나온 일부 유해를 옮겨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증언이 있으나 댐을 만들면서 학살지 상당수가 수몰돼 버렸습니다. 댐 조성 이래 그 물은 오늘에도 대구 시민들의 식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언한 인근 야산에 2023년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했으나 7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지형이 변해 끝내 유골을 찾지 못했습니다.

댐 아래 용계 체육공원 한쪽에 대구시가 조례에 따라 2020년 ‘10월항쟁·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까지도 그 탑은 제막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경산 코발트 광산은 무기나 비행기에 사용된 합금의 원료인 코발트가 묻혀 있어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940년대 보국코발트광산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한 곳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코발트광산으로 채광, 선광, 제련 시설까지 갖춘 대규모 광산이었으며 1945년 해방 직전 폐광되었습니다. 지금도 경산 일대에는 관련 시설과 당시 노동자 숙소 등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요시찰 인물과 국민보도연맹원, 교도소 수감자들을 손쉽게 처형하기 위해 폐광산의 수직굴을 이용했습니다. 7월 초부터 말까지 하루에 수백 명씩 군용 트럭에 싣고 와 총살했습니다.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연행되어 온 사람을 여러 명씩 밧줄로 묶은 채 강도 입구에 세

워놓고 총을 쏘면, 총에 맞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묶여 있던 시신과 함께 깊은 갯도로 추락시켜 학살하는 방식입니다. 수직굴이 가득 차자 인근 대원굴 구석구석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 골짜기로부터 오래도록 핏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본 주민들은 긴 시간이 지나도 그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입 밖에 꺼내기를 주저했습니다.

1960년 5월 22일 영남일보 기자였던 강창덕이 코발트 광산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세상에 알려 유족회도 만들어졌지만, 1961년 5·16 후 유족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혁명재판으로 다시 감옥에 갇히는 등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았으므로 아픈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입을 봉해버릴 만도 한 것이지요.

전국유족회가 집계한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은 최소 100만 명에 이르고 수천 곳의 민간인 학살 현장이 있는데, 그중 가장 확실하게 현장이 남아 있는 곳이 경산 코발트 광산입니다. 이곳은 특히 일제의 수탈 현장이며 민간인 학살지라는 이중의 역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보존과 평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절실합니다.

“하루에 군용트럭 10여 대씩, 한 달간 계속 실려 왔으며 트럭이 지나가고 몇 시간 후에는 콩볶는 듯한 총소리가 평산동 쪽에서 들려왔다”
“전쟁이 나고 7월 20일이 지났을 무렵 갑제동 산에서 소에게

꿀을 먹이고 있던 중 뒤통이를 찌르고 군인들이 올라탄 트럭들이
경산코발트광산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산으로
올라간 차들은 수직굴 밑에 삼베 및 모시옷 등을 입고 실려
온 사람들을 하차시켰으며 약 10명씩을 수직굴로 데려가
총살시켰습니다. 당시 사살현장에는 헌병과 경찰이 있었는데 그때
광산에서 처형된 사람들은 경산에서 경찰에 예비검속된 사람들과
대구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인 문○○,
면담보고(2008. 9. 11.)]



3500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돼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경북 경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폐광
(코발트 광산)에서 발굴된 유골 사진. 좁고 깊은 수직굴과 수평굴 안에 겹겹이 쌓여 있다.

“매형은 경산지역 방위장교로 경산코발트광산에서 사람들이 총살될 때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매형은 현장에서 누군지는 몰라도 총을 쏘라는 지시를 하었는데 도저히 총을 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매형은 계속된 총살로 광산의 수직굴이 가득 차자 수직굴 옆 골짜기에 땅을 파고 총살을 계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참고인 이○○, 면담보고(2009. 10. 1.)]

1975년 경산경찰서에서 작성한 「처형자가족명부」에 기록된 처형자들의 피살 전 활동을 보면 대부분 ‘남로당 가입’, ‘10·1사건 가담’ 등으로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경산경찰서 자료와 진실규명대상자를 비교·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 남로당 가입, 보도연맹 가입, 부역행위, 10월 항쟁 가담 등의 이유로 한국전쟁 전후 사살 또는 행불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보도연맹원 약 1,000명과 대구형무소 수감자 약 2,500명 등 총 3,500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07년부터 첫 유해 발굴이 시작되어 1,000여 구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영천 아작골

경북 영천 임고면에 위치한 절골은 ‘아작골’이라고 불립니다. 10월항쟁의 진원지 중 하나인 경북 영천군에서는 입산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마을에 남아 있는 주민 대다수가 보도연맹에 가입당했습니다.

그 후 한국전쟁이 터지자 영천의 보도연맹원과 거주민들은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적법 절차 없이 예비검속되었다가 절골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했죠. 200여 명의 영천 주민이 끌려가 학살당하면서 동네가 ‘아작이 났다’고 얘기한 것에 유래해 아작골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2018년 6월, 임고강변공원에 세워진 영천시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10월항쟁’이다

10월항쟁은 1946년 전국적으로 230만 명 이상의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그리고 시민 등 이 땅의 많은 민중이 참가한 살아 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나 3·1운동에 버금갈 정도로 크게 일어난 항쟁이었습니다. 해방 후 최초의 민중 항쟁이었으며, 해방군이자 그들의 포고문에서 알 수 있듯 점령군이기도 했던 미군정 시기에 일어난 항쟁입니다. 그 중심에 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조선공산당의 지령과 선동으로 일어난 ‘대구폭동’이라고 매도당하였습니다.

2005년에 시작된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관들은 10월항쟁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을 밝히고 그들이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밤잠까지 설치며 그 많은 학살의 원인이 1946년 10월항쟁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5년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2010년 3월 ‘대구 10월 사건 관련 진실규명 결정서’에서 “당시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이 친일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 정책을 강압

적으로 시행하자 불만을 가진 민간인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당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 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9년 결성된 10월항쟁유족회는 전국의 수많은 유족회 중 유일하게 ‘항쟁’을 이름에 내건 유족회입니다. 10월항쟁유족회는 결성 과정에서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의 도움을 받아 2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며 공부를 했습니다. 결성 초기부터 2024년까지 유족회를 이끌었던 채영희 회장을 인터뷰한 경북대 이동진 교수는 10월항쟁유족회가 다른 유족회와 다른 점이 자신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10월항쟁에 참여한 것을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10월항쟁에 대한 것을 완전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틈틈이 공부를 하죠. ... 아직도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자식들이 많죠. 아버지들이 그 시대 상황에 앞서나간 사람들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앞서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다만 민중을 대변하느라 앞서나간 사람들인데, 그 아버지들이 다 살아계셨더라면 정말로 세상은 달라졌을지 모르죠. 그런 훌륭한 아버지들이 데 자기가 빨갱이 자식이라고 손가락질당하고 가난으로 시달림받고 살아서 아버지를 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아버지들의

뿌리를 알고 떳떳해져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우리 아버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역사에 정립하기 위해 자꾸 공부를 하는 거죠.”

- 채영희

10월항쟁유족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실규명 결정서를 바탕으로 대구시에 요구하여 2016년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도 ‘항쟁’으로 제대로 된 이름을 되찾았으니 이제 명실상부한 ‘10월항쟁’이 되었습니다.



73년만에 시작된 대구 가창 용계리 유해발굴 현장
채영희 유족회장 등 유족들이 유해발굴 중 발견된 물품을 보고 있다.
(출처 : 2025.6. 대구. 73년만의 유해발굴 현장. 이재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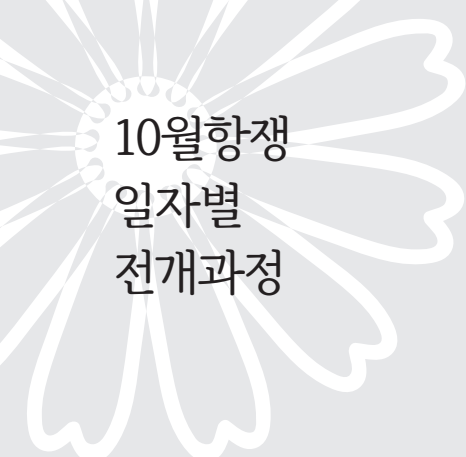
우리의 ‘10월’

제주 4·3이나 여순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등은 당당하게 그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방 후 최초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대중운동인 10월항쟁도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월항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10월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자, 농민 그리고 민중이 함께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슬 퍼런 미군정 하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떨치고 일어난 그 수많은 ‘10월이’들과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르지 않으니깐요. 부디 10항쟁의 정신을 이어 민주화되고 통일되고 평등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팔공산 푸나무들은 1946년처럼 오늘도 곱어보며 우리의 푸른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금만 作, 항쟁의 심장(10.1대구항쟁)160X130cm콘테2024



10월항쟁 일자별 전개과정

9.24
(화)

● **대구역 철도 파업**

대부분 노동자 결근 / 기관구 노동자들 중심

● **대구철도쟁의단 구성하고 성명서 발표 5개 요구 조건 제시**

일급제반대, 임금인상, 쌀 배급, 해고 반대, 급식 부활

● **서울 철도국 쟁의단으로부터 파업지령 전보**

● **대구지방 금속공장 노동자 900명 파업 동참**

9.26 (목)

- **대구지역 총파업의 국면은 다른 부분으로 동맹파업**
- **대구우편국 종업원 700명 (교환수, 배달원, 공무원, 사무원등)**
- **대구전화국 노동자 동맹파업 7개 요구 조건 제시**
 일급제반대, 임금인상, 물가수당, 가족수당 인상, 쌀 배급,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실시, 철도파업지지
 ※ 공공부문 파업은 9월 총파업에서 중요한 의의 : 철도파업에 대한 동맹파업과 국가 공공부문 파업으로 9월 총파업의 성격을 대중화하고 공식화하는 의미
 ※ 국가기관의 공무원도 파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확산
- **대구중공업회사 동맹파업 3개 요구조건 제시**
 회사 운영에 대한 공장원 참여, 식량 확보, 무조건해고 반대
- **섬유, 금속, 출판, 교통, 화학 등 각 산별부문의 노동자 총파업 단행**
- **남선전기 대구지부, 조선운수 주식회사 노동자 파업**
- **대구전평 금속노조 산하 공장 동맹파업**
 ※ 9월 총파업 중 지역 수준의 각 산업별 총파업이 단행된 곳은 대구가 유일
 ※ 전평 대구지방평의회 체제가 파업 초기부터 가동되면서 아래로부터 각 산업별 노동자의 광범한 참여를 바탕으로 총파업을 조직하고 기획했음을 의미
 ※ 대구지방평의회가 각 산업별 노동조합 중심으로 파업을 단행할 만큼 일정한 조직력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의미
- **일반시민 후원단을 구성하여 파업 동정금 납부**

9.27 (금)

- **5개 직물공장 및 조선중공업 대구지점, 출판노동자조합(인쇄노동자, 신문기자 등) 동맹파업**
- **신흥제사공장 노동자 회사 측에 식량 확보 등 요구조건 제시**
 9.28일부터 총파업 전개
- **편창제사공장, 조선제사공장 파업**

●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 결성

대구노평의장 윤장혁 총 책임자

대구노평이 대구 경북지역 총파업의 지도부로 기능 시작

● 윤장혁, 대구 군정지사(해론대령), 제5관구경찰청장(권영석)
파업문제 논의

● 윤장혁, 해론대령, 김의균 고문 회담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함

9.28

(토)

● 대구노평 산하 각 공장 250명 노동자 파업

대구전기회사 노동자 파업

9.29

(일)

● 대구전매국, 화학공장 등 파업

●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가 간판을 노평에 걸고 이곳을
본부로 정하면서 대구지역의 모든 공장이 파업에 동참

● 전평계열의 모든 파업노동자를 결집시켜 파업투쟁의 역량을
극대화 시킴

9.30

(월)

● 대구시투쟁위원회가 대구경북지역의 총파업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당국과 대립하기 시작

● 대구시투쟁위원회 간판 문제로 오후부터 물의가 발생하고
파업국면은 파업단과 경찰 측이 대립하는 형세로 진행

10.1 (화)

● 대구시민 400여명 대구부청 앞에서 쌀 요구하자 경찰이 군중들에게 발포하는 사건 발생

발포경관을 구타하고 부녀자들은 부청으로 난입

※ 노동자 파업투쟁이 식량문제를 매개로 일반 대중투쟁과 결합하는 가능성 전개

● 노동자 총파업이 대중투쟁, 대중항쟁과 결합될 가능성은 10월 1일 현실화

● 대구 화학노조 산하 전 공장노동자 파업

※ 전평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전체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파업의 상승발전을 지속시키는 요인은 각 산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참여와 파업투쟁 및 대중항쟁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대구시투쟁위원회의 존재로 이는 총파업이 지역적 수준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바탕이었으며, 후에 당국의 탄압에 저항하여 10월항쟁을 촉발시키는 추진력으로 작용

※ 대구의 노동운동세력은 9월 총파업을 대중투쟁과 결합시키고 10월항쟁으로서 발전을 가능케 한 출발점을 제공

● 남조선총파업 투쟁위원회 앞에는 철도를 비롯한 각 산업별 수천 명씩 집결하여 농성

오전 10시에는 각 공장파업단 및 일반시민까지 참여

※ 대구지역의 노동자 총파업은 일반대중들이 참여하는 대중투쟁으로 발전

● 무허가 집회를 구실로 무장경찰관을 동원하여 투쟁위원회 본부 포위 경찰대는 철수하고 파업단은 300명을 남기고 해산

● 18시경에 무장경관 170명이 남아있는 군중 해산시키려고 기습적으로 습격 발포하여 군중들은 이에 대항하여 경찰을 공격하면서 사상자가 속출

철도파업노동자, 대구노평 조합원 약 5000명

10.2 (수)

- 22시경에 투쟁위원대표와 경찰청장의 회견 후 양측이 무조건 해산하기로 결정
- 미군정과 경찰은 이러한 사태를 폭동으로 간주하고 강경하게 대응**시작** 전평본부를 급습하여 10명을 체포하고 서류를 압수, 대구노평의장 윤장혁 수배
- 노동자 파업과 시위 그리고 대중투쟁은 지속
- 도청직원 300명, 금융단체 200명, 신한공사 60명 파업 돌입
- 학생대가 출동하고 금정(錦町)쟁의단의 공세적 태도로 무장경관대와 대치상태에서 10시경에 학생들이 대구경찰서 쇄도
- 학생, 노동자, 시민 등 대구경찰서 포위하여 경찰관 무장해제 시킴
- 대구시투쟁위원회에 노동자, 민청원, 농민, 시민 등 2만 명 집결하여 집회
- 11시경에 무장경찰관 150명 출동하여 선동연설 중인 여성노동자 등을 현장에서 사살, 군중들은 경찰을 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
 - ※ 대중들의 분노를 전면적으로 폭발시키고 행동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침
- 대구지역의 관공서, 금융기관이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도청 간부들을 [시민에게 사과함] 발표한 후 사직서 제출
- 대구시 영화관, 상점, 음식점 등은 문을 닫고 파업상황은 대구시 기타 기관으로 파급

- 경찰은 진압을 위하여 충북(300명), 충남(450명)에서
경관대의 지원을 받았고 군정 공안국장 대구 출동하여 지휘

- 14시경에 미군 장갑차 등 대구경찰서 도착 후 해산명령

- 파업대책위원회와 교섭한 결과

파업의 합법성 인정 / 검속한 사람 전부 석방, 무장탄압 일체하지 말 것 등
요구하여 승인받고 학생들은 무기를 반납하고 해산

- 시민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쌓여온 경찰에 대한 원한으로
민중봉기가 자연발생, 경찰과 친일파의 사택을 습격

※ 시민, 학생 등 다양한 비조직 계층이 참여하는 대중투쟁으로 이행하고 그러한
항쟁을 운동지도부가 위로부터 통제하고 조절하거나 억제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 경북 미군정은 19시경에 대구에 계엄령 발표 미군부대 파견

대구부, 달성군, 경주군, 영일군에 계엄령 선포, 10명 이상 집회와 행진
시위행렬은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야간통행도 금지하고
신문, 포스터를 포함한 인쇄물의 발행이나 배포를 금지

- 대구부내 치안은 미군, 각도 경찰증원대, 국방경비대 담당

10.10 (금)

- 10.10까지 대구 시내 각처에서 1천명 검속하여 600명 경찰서 구금

- 윤장혁(대구노평), 최문식(인민당), 이목(민성일보),
손기채(조선공산당)등이 구속되면서 대구파업과 대중운동의
지도체제가 작동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짐.

- 계엄령 선포로 파업이 불법화됨에 따라 노동자 파업운동의
합법적인 공간이 봉쇄되었고 파업과 대중운동의 중심이
대구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전되고 지방의 좌익 대중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대중투쟁이 자연발생적으로 분출되는
계기를 만듦

- 10.6 철도노동자에 대한 직장복귀 명령으로 일부 노동자 복귀
그러나 각 산업기관에서는 파업상태가 유지되었고 우편국도
업무 중지 상태 유지
- 미군정은 제5관구경찰청장(권영석)을 정직시키고
대구경찰서장(이성욱), 경산, 영천, 성주경찰서장을 면직
- 10.6 대구철도파업노동자와 협의 10.7부터 일부 노동자 직장
복귀와 10.8에는 1,000명의 철도노동자들이 직장 복귀
- 10.9 대구역을 통과하는 경부선 운행되고 10.10부터는
대구선이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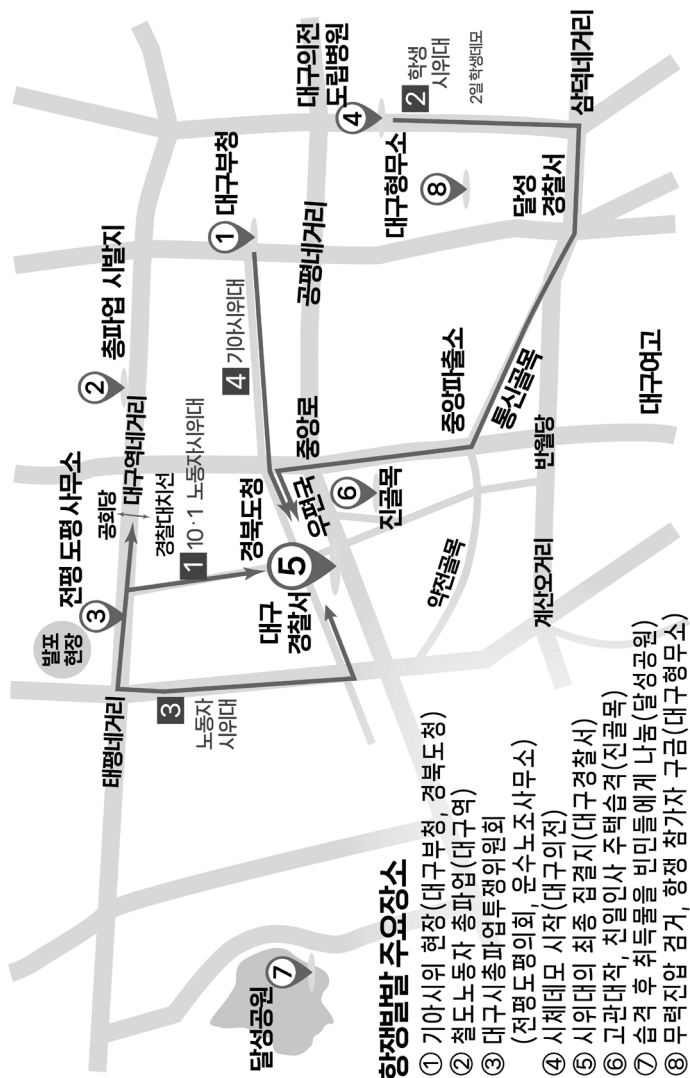
10.11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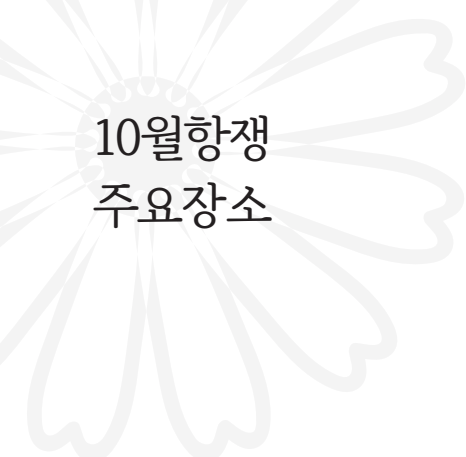
- 대구우편국, 대구전화국 일부 노동자 직장복귀
- 10.12 대구 관공서, 국영기관, 금융기관 노동자 92.3% 직장 복귀
- 대구역 철도노동자 99.6% 직장 복귀
- 10.15에는 항쟁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비상수습대책협의회 결성 여기에는 파업정지와 민생안정에
대한 문제 토의

10.22 (수)

- 자정을 기하여 대구를 비롯한 경북일대에 선포된 계엄령 해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여 노동자
파업과 대중항쟁에 따른 여파 대비

10월항쟁 전개도





10월항쟁 주요장소

1

구) 전매국 대구지국



대구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노동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대구노평 투쟁의 중심에는 대구전매국과 남선흥동전기주식회사¹⁾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매국은 해방 직후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노동자들은 쉼새급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이 투쟁은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매국 노동자들은 배고픔을 달래려 담배갑 포장용 풀을 먹는 일이 다반사였다. 사측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풀에 물감을 타기도 했었지만 먹는 일은 그치지 않아 퇴근길 노동자들의 입술이 파랗게 물든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 당시 전평 경북도평 간사 이일재 선생 증언

1) 담배·홍삼 및 홍삼 제품을 다루던 공장으로 현 KT&G와 전기 공급업체인 현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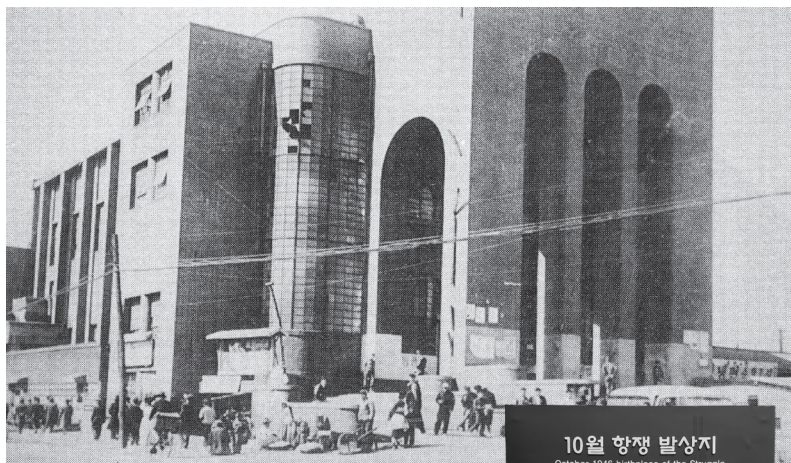
조선노동조합대구평의회 (전평 대구노평)



해방 직후 열린 수많은 집회들은 주로 대구역 광장에서 열렸으며, 대중투쟁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중심이었습니다. 1945년 12월 10일 발족된 후에 1946년 3월에 친일파 출신 장직상이 남선전기 사장에 임명되자 이를 거부하는 투쟁을 벌였고, 4월에 대구전매국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벌여 8시간 노동제, 유급공휴제, 수당 인상 등 쉽지 않은 요구를 내걸고 성공시켰습니다. 9월총파업 또한 전평 대구노평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10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경찰 총격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3

대구공회당 (현.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역과 대구공회당 주변은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10월항쟁의 발상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사)10월항쟁유족회와 시민모임4610의 노력으로 표지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항쟁 79주년 만인 2025년에서야 말입니다.



4

대구경찰서 (현. 대구 중부경찰서)



경찰 총격에 의한 노동자 사망에 분노한 민중들은 대구경찰서로 몰려왔습니다. 학생, 교수, 노동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경찰서장은 총기를 반납하고 경찰 병력을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위대가 대구경찰서로 들어가 수감자 100여 명을 석방해낸 곳이기도 합니다.

5

대구부청 (현. 대구시의회 자리)



식량난에 시달리던 빈민들과 부녀들의 기아민중 시위가 열렸던 곳입니다. 식량난과 미군정의 가혹한 미곡 공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콜레라까지 발생하면서 교통까지 차단당했었죠. 수천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부청과 도청에 찾아가 배고파서 못살겠다는 외치며 식량배급을 요구했습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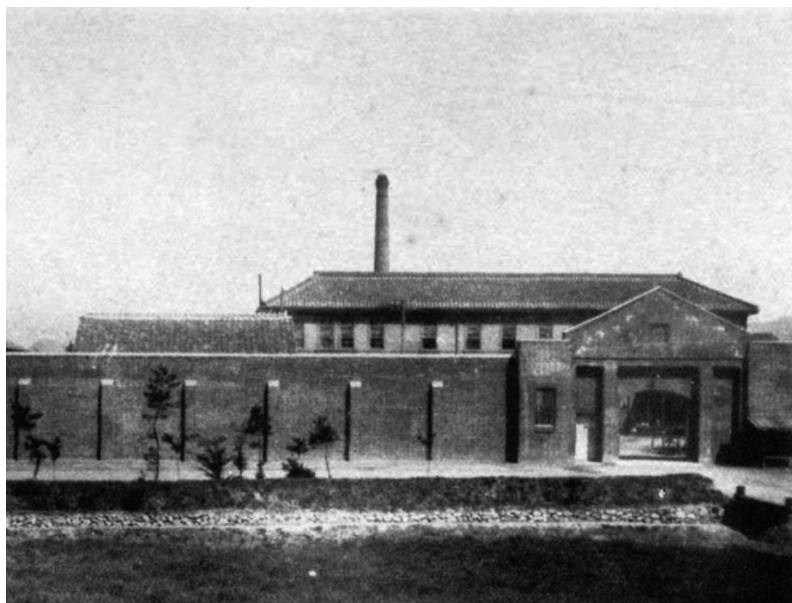
대구의대 (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경찰의 발포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의 시신이 옮겨진 곳입니다. 대구의대 학생들은 노동자의 시신을 들것에 메고 주변의 학교들을 돌며 경찰의 발포로 무고한 노동자가 죽었음을 알렸고, 이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구 경찰서를 행하게 됩니다.

7

대구형무소 (현. 삼덕교회 자리)



미군정의 계엄령 선포 이후 무차별적인 진압이 이루어졌고 대구·경북에
서만 7,500명이 검거됐습니다. 당시 10월항쟁으로 인해 검거되었던 이들이
수용된 곳입니다.

8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출처 : 2023.9. 대구10월항쟁위령탑. 이재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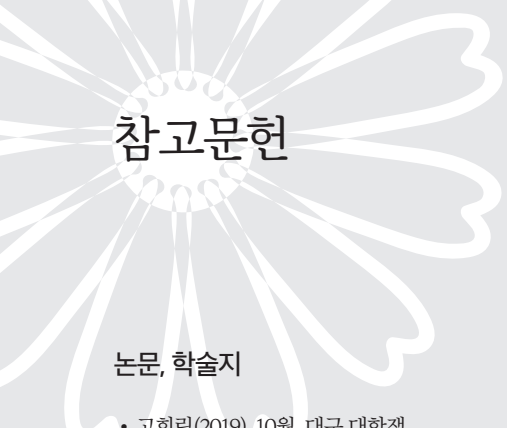
10월항쟁위령탑이 있는 가창댐은 10월항쟁의 대표적인 학살터입니다. 대구형무소 수감자를 비롯해 제주 4·3과 여수·순천 항쟁 관련자들까지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창댐 공사 당시 굴착작업을 하던 기사가 수많은 유골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보고 도망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9

경산 코발트 광산



10월항쟁 희생자뿐 아니라 한국전쟁 시기 대대적인 민간인 학살이 이뤄진 곳입니다. 적법한 근거나 절차도 없이 정부에 의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당한 곳입니다. 보도연맹원 약 1,000명과 대구형무소 수감자 약 2,500명 등 총 3,500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07년부터 첫 유해 발굴이 시작되어 1,000여 구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학술지

- 고희립(2019). 10월, 대구 대항쟁
- 김남식(1988). 남로당을 해부한다, 연재 15회 : 신전술과 10월항쟁
- 김무용(2006). 1946년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의 상호 융합, 운동의 급진화
- 김일수(2004). 지역의 목소리 : 대구와 10월항쟁 - '10.1사건'을 보는 눈, 폭동에서 항쟁으로
- 김일수(2011). 10월항쟁 : 연구현황과 전망
- 김일수(2020). 대구의 역사 갈등과 역사화해 - 10월항쟁을 중심으로 -
- 김학노(2022). 누가 우리인가? 10월항쟁, 우리 형성의 헤게모니 투쟁
- 손호만, 이재식(2011). 영원한 철도노동자 류병하 대선배를 만나다
- 오혜영(2017). [이 달의 역사] 1945년 11월 5일 - 한국 최초 전국총파업을 조직한 조선노동조
합전국평의회 결성되다!!
- 오혜영(2018). [이달의 역사] 대구 10월 인민항쟁
- 이재영(2015). [10월, 다 어디로 갔는가] 전평의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의 역사적 성격
- 임세화(2024). 잊혀진 항쟁 : 1946년 10월 항쟁과 냉전기 민중운동사의 궤적
- 정해구(2011). 해방공간에서의 10월항쟁: 그 의미와 평가
- 정희상(1989).『전평』주역들의 증언, '10월 민중항쟁'
- 한상구(1992). 특별기획2:하나의 생명이 폭풍이 되어 10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한노동자의
시신
- 함종호(2011). 10월 민중항쟁의 정치적 의의와 진상규명의 과제
- 이동진(2013). 기억의 10·1사건- 기억의 변경, 변경의 기억

도서

- 김상숙. 『10월항쟁-봉인된 시간 속으로 1946년 10월 대구』. 돌베개. 2016
- 안태정. 『<연구총서06>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2
- 정해구. 『<열음사상총서16> 10월 인민항쟁 연구』. 열음사. 1988
- 정영진. 『폭풍의 10월』. 한길사. 1990
- 이증기. 『정녀들이 밤에 경찰 수의를 지었다』. 산지니. 2022
- 김달수. 『태백산맥』상, 하. 연구사. 1988

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III.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대구, 그 아픈 역사의 조각들
- 진실화해위원회(2010).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대구·칠곡·영천·경주-
- (주)경산신문사(2008). 경산코발트광산의 진실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10월항쟁 특별위원회. 1946년 10월 대구항쟁 답사 자료집

강의자료

- 이태광(2025). 10월 인민항쟁·인간해방·민주주의.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 천용길(2025). 전평총파업과 10월항쟁. 경북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기타

- 장창준(2025). 10월 대구 항쟁의 진실과 현재적 의미
- 대두경북작가회의(2025). 제13회 대구경북작가회의의 10월문학제 ‘영천아리랑’
- 10월항쟁을 기억하는 시민모임 4610(2026). 1946년 10월항쟁 자료집
- 루이 델랑드의 영천 일기
- 강태원, 권상구(2020). 거리와 광장의 지성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10월항쟁 이야기

발행처 10월항쟁시민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발행인 임성중, 이길우

발행 2026년 5월 1일

개정 재발행 2026년 9월 7일

편집위원 이미애, 이정연, 현지현

디자인 이신정

도움 주신 분 10월항쟁유족회 채영희, 박종경

10월문학회 고희림 대구416연대 박신호

다섯손가락 이두현

경북대5.18민주화운동유공자모임 강기룡 이현근 함종호 박종덕 조용광 손호만

석원호 이상술 유수근 장대수 신창일

심심책방 최호선

강태원 이재영 이재갑 정윤제

본 책자는 비매품으로, 무료로 배포됩니다